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08	11. 15	11. 22
대 표 기 도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성 경 봉 독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렘1~19장)
2. 구역 나눔-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부를 나누세요.
3. 주일학교-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교육에 힘써주세요.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출 20 : 4 - 6(구p112) ... 정용현 안수집사
 설 교 Predigt (2.Moses 20:4~6)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22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수현 집사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

옛말에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 다라는 뜻입니다. 곧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뜻한다. 또한 부불삼대(富不三代)는 부유함이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은 "메디치 가문"으로 약 200년 이상 그 부를 이어갔습니다. 옛 사람들은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았으니 적어도 7대 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디치 가문도 200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경영학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평균 수명이 30년 이라고 합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우리를 가로 막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큰소리 칠 수 없습니다. 한계를 알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한 질주를 하지 못합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과 책망을 받을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매김 / 황형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담임)

*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나라에서 밝혀진다. - John Wesley -